

다니엘 36 강

어제도 읽었지만 단 9:20 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그가 내게 알려 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네게 알려 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칠십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에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칠 주와 육십이 주가 될것ियो,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런 때들이라. 육십이 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 지리라 하더라.] 23 절까지는 어제 살펴봤고 오늘은 70 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이란 것은 미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때에 찬 경륜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60,70,80 년, 100 년 이 육신적인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난리들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 보면 시간이라는 말도 나오고 날이라는 말도 주(week)라는 말도 달, 해, 때, 때들, 또는 반때, 한때, 두때, 이런 말들도 나오죠?

이렇게 시간적인 단위가 성경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구분 단위는 동일한 기준 위에서 그 길이를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일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민수기 14 장 33 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 날수를 따라 곧 사십일의 하루를 1 년으로 하여 40 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죄를 지었죠? 불평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시간에 맞춰 달라고. 내가 고난이 있으니까 내 시간에 맞춰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게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자신부터.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집어넣지 않아서 그런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할 때 40 일의 하루를 1 년으로 해서 40 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향을 해야 된다. 1 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여기서 보게되면 하나님께서는 오 하루를 1 년으로도 보시는구나. 또 하루를 천년으로도 보시고 또 천년을 하루로도 보시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알아야 됩니다. 70 주라는 것도 이것을 이런 각도에서 보지 않으면 하나도 모릅니다. 70 주를 실질적으로 70 주로 생각한다면 1 년 몇개월밖에 안되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성경이 아무리 봐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40 일을 40 년으로 계산했다. 자 그러면 70 주가 70 번의 일주일이죠? 일주일이 70 번인데 70 주가 아닙니까? 그러면 $7*7=49$, 490 년 아닙니까? 490 일을 1 년으로 본다면 490 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풀어 본다면 성경이 깨달아 집니다. 그런데 70 주라는 것이 490 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요. 하나님의 눈은 예루살렘 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면 세상이 끝입니다. 한국 사람을 보면 안됩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이상하게 자기네가 깨달은거,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 이걸 뭐라 그런가하면 성경말씀을 자기네 나라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만 해도 뭐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하고 몰몬교들은 유타에 오신다 하고 이게 다 성경을 못깨달아서 그런 거죠. 자칭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대부분 신학교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졌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없어진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게 안믿어 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고 99%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고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거기에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은 그렇게 한거고 주님 자신도 이땅에 오셨을 때 거의 99.9%가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이신 그분을 배척한 것처럼 주님 오실때도 마찬가지로, 인자가 올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 까지 칠주와 육십이 주가 될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5 절에 나오죠? 칠주와 육십이 주가 될것이다. 그러면 70 주 중에서 483 년이 되면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의 통치자가 이땅에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1년을 365일이 아니라 또 4년마다 윤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1년은 360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귀타고 입성할 때에 그때 483년이 이루어졌습니다. 클라르 라켄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주일마다 도표를 보잖아요? 그분은 성경을, 그분이 제도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다 그려가면서 전부 한거예요. 그분이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483년만에 결국은 예수님이 나귀타고 통치자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메달아 죽였죠? 또 알면서도 죽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씀을 이루셨단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칙령들 이 명령들 예루살렘에 관한 명령들이 4번 나왔어요. 첫째는 고레스왕 때 B.C 536년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이 내려 왔습니다. 성전. 예루살렘을 복원하는게 아닙니다. 두번째는 다리오왕 때 그 칙령을 발견하고 그게 B.C 519년인데 다시 성전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세번째는 아닥사스다왕 때 B.C 458년에 또 칙령이 내렸는데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네번째 B.C 445년에 페르시아 왕 아닥세르세스 롱기미누스 치리 때에 다시 한번 칙령이 내렸는데 예루살렘의 도성을 재건하라는 칙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성을 복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아닥세르세스 왕에 의해서 느헤미야에게 내려졌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궁내에 고위직에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하라는 칙서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칙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아무나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면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당시에 산발락과 토비아 같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본문에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런 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난을 받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동족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방해했는지 고난을 받아 가지고 12 년만에 예루살렘 도성이 복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때 4 번째 칙령 때부터 계산하니까, 세 번까지는 성전이라고 했죠? 네 번째 예루살렘 도성을 복원하는 이때부터 하니까 정확하게 483 년만에 이루어져서 칠주와 육십이 주, 69 주라는게 483 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제는 하나 남은게 한 주, 7 년밖에 안남았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한 주가 바로 연결됐다면 세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공백이 뭐냐? 그것은 그때 끝나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가셔서 성령을 보내 주셔서 가지고 이 땅에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한 이레, 그것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자 에베소서 1 장 4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 하셨으니]** 이스라엘은 백성들이죠? 선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양할 것을 예정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이레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일을 2 천년동안 하셨어요. 이것을 바로 교회 시대다 은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4 장 또 마가 복음 13 장 그리고 누가복음 21 장에 주님께서 올리브 산 감람산에 앉으셔서 가지고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에 관하여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미 그것은 69 주가 지난 때였고 이제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거기의 말씀은 대환란때에 관한 말씀인데 마지막 한 이레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이게 대환란이죠. 그래서 그분의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견하셨죠? 또 이방인들의 때가 찰때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발에 어떻게 짓밟힐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70 번째 주에 해당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A.D 70 년에 예표로 파괴됐었죠? 그리고 26 년이 지났을때 사도요한을 통해서 A.D 96 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산상

설교를 재확인 해주었을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70째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상세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호리병)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일곱이다. 일곱 가지란것은 7년을 얘기하는 거죠. 한해 한해 이런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한꺼번에 일어난 것을 적다보니까 이렇게 인이고 나팔이고 호리병으로 얘기한거죠?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7년 동안에. 자세히 보면 그런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도 여러번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니엘의 70주는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기간이다. 다시말해서 이거는 이방인의 때와는 다른거고 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니 어찌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마지막 연단해서 그들을 하늘로 새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는게 아니고 그들을 이 지구상에 팔레스타인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유프라데에서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과 그씨에게 주었다. 그 씨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한다(갈 3:16).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에덴 동산 자리에서 아담처럼 왕이 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르면 성경을 완전히 엉터리로 알게 됩니다. 그들을 이제 연단을 해가지고 회개한 사람만 속 뽑아 가지고, 욕이 그랬죠? 나를 연단을 해가지고 정금처럼 나온다. 그렇게 순수하게 된 사람. 정말 시편 24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정말 깨끗한 사람만 골라 가지고 이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말이죠? 상관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데려간다고요. 이게 휴거입니다. 들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의 특권, 면류관 받은 사람들은 이땅에 내려와서 천년동안을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핍박받은 보상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찾게되면 어떻게 되요? 핍박받게 되죠.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땅에서 지금 받는게 아니고 지금은 고난 받을 때요 지금은 cross 질때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오실 때 crown 을 받는 거예요. 제 멘토되는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No cross, no crown 이라고.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는 안지고 크라운만 만들려고 그래요. 특히 목사님들이 더 그래요. 여기서 대접 다 받으려고 그래요. 뭘 몰라서 그렇죠, 그들이 알면 그러겠습니까? 사도바울은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주님이 받은 고난을 자기도 받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주님이 상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내일 모레면 목잘려 죽는데도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한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못깨달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 인생들이죠. 결국은 뭔가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 죽으신거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으로 오신 분이 죽으시니까 이스라엘은 정지된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단된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셨을 때 이때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거예요. 그래서 시작된다는 게 뭔가하면 대환란이 시작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는 마지막 그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짹짹가는 거예요. 1년,2,3,4,5,6,7년. 그런데 그것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감한다고 그랬어요. 딱 7년이 아니고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계획한것은 7년이에요. 그것을 감한다고 했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시간을 멈추고 고 멈춘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로마서 11장 보면 원가지가 꺾인 자리에 우리가 조금 젖붙여진 거예요. 그들의 일부가 꺾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되요. 세상 사람들도 살다보면 평생에 두세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러죠? 혹시 로또가 당첨되지 않나?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로또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예요. 지금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재벌의 아들되는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창조주의 아들되는게 로또 아닙니까? 이걸 영원한 로또지. 아무도 못뺏어가요. 이 490년이라는 기간이 말이죠.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490이라는거, 베드로가 그랬죠? 아 내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번이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일곱번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일곱 숫자를 좋아하니까. 허허허.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일흔번씩 일곱번 해라. 이게 뭐죠? 70이래예요. 490번이라는 얘기에요. 꼭 뭐 490번 하라고 했습니까? 이걸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주님은 훗날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마디 탁 던질때 너희가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는가? 베드로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70이레가 되야지만 너희가 끝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어야만 너희 죄가 다 용서가 된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을 처삼촌 별초하듯이 읽으면 안됩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읽고. 처삼촌 별초하듯이 읽는게 뭐죠? 주일날 말씀한번 듣고 끝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 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서 별초할때 잡초를 하나 하나 뽑고 깨끗하게 하는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보게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과 사건 사이를 잇는 기간은 항상 일흔번씩 일곱번, 490 년이라는 시간단위로 다루신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기간이 남아있다. 바로 다니엘서 9 장 24 절에 **[70 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이 말씀으로 표현되는 기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언제 다시 시작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뭐죠? 언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크게 봐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4 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퍼즐처럼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세지인데 이것을 안 읽으면 말이 안되죠. 다른건 많이 읽으면서. 히 4 장 4 절 보면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어려면”이라고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안식이라는거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먼저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천년왕국이 못되었죠? 그들이 범죄해 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죠?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 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은 못들어갔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들어갔다. **[또 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 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고 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성경은 전부 여호수아로 바꿔놨어요. 예수 그러니까 안 믿어지거든. 킹제임스 성경만 예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뭔가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면 예수를 믿어 가지고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 갔다면 다른 날이 없다. 그때는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수아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말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영어도 이해 못하고. 요즘 보면 사람들이 성경 읽을때 한국말도 이해못하고 영어도 이해 못하더라고. 자꾸 헬라어 히브리어만 얘기하는데 자기네 말도 이해 못하면서 영어도 이해 못하면서 무슨 헬라어 히브리말이 나옵니까? 솔직히 영어를 십 몇년 배워도 못하는데 히브리 헬라말은 다 잊어 버리죠. 전 다 잊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들어 가는게 뭐죠? 앞으로

대환란을 통해서 그때 회개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그때는 예수가 안식을 준다는 소리에요. 그게 천년왕국, 밀레니엄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한 안식이 천년왕국이예요. 이걸 보세요. 육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셨다. 마찬가지로 하루는 천년같다. 주님이 가셨을 때 사천 년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세상의 때를 구분할때 B.C와 A.D로 구분하죠? 이게 하나님이 강권하신 거예요. B.C, 주님이 오시기 전에 4 천년. 아도 도미니 A.D,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2012년. 그런데 사실 2012년도 2012년이 아니야. 이것은 로만 캘린더로 365일로 계산했어요. 음력도 아니고 유대력으로 하면 이천년이 조금 지날까 말까예요. 이걸 볼때에 결국은 6일동안 일하고 일곱째날은 쉬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게되면 거의 다 된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거죠.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게 뭐죠? 대충 아니까 이제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주변 정리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암이 걸린 사람이 뭐하죠? 주변 정리합니다. 우리도 주변 정리해야 됩니다. 저기 다운타운 나가서 전도할 때 보면 홈리스들이 카트에다 비닐 봉지를 잔뜩 싣고 다녀서 뭐 있나 보면 하나도 쓸게 없어요. 그걸 보면서 내 모습을 봤어요. 우리 집에 거라지를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 쓰지도 못할것 잔뜩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가지로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이레 동안에는 교회라는건 없어요.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들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단도 있더라고요. 다 성경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뒤죽박죽이 되었으니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26 절 보니까 **[육십이 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분께서 다윗의 보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통치자. 침례인 요한도, 예수님 자신까지도 그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요한이 감옥에 갇혀 죽게 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천국이라는것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 그얘기예요. 주기도문에 왕국이 임하옵시며 Kingdom come, 그게 그거거든요. 그거는 바로 유대인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휴거될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어떤 차이냐? 우리는 오긴 오는데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오는 거예요. 12 사도는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고, 성경에 분명히 누구는 뭘 다스리고 다 나와요. 누가 영의정 좌의정인지 다 나와요.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설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우리 두 아들을 주님이 오실때 양편에 세워 달라고. 그건 하나님이 할일이다. 그 잔을 마셔야 한다. 마시겠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세웠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둘과 함께 나타난 것은 뭔가하면 천년왕국에 빛과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옛세 후에 그랬습니다. 옛세 후. 옛세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옛세 후가 뭐죠? 6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팔일째 되는 날. 결국은 7 일째죠? 옛세 후도 7 일째고 팔일째도 7 일째고 그러니까 일곱째 날 천년왕국때 나타나 가지고 영광 받는걸 미리 보여 주셨죠. 26 절 보니까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이 통치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디도 장군이 70 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 준거죠? 로마의 장군. 적그리스도가 바로 마지막 로마에 속한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에 속한 자가 로마교회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되어 가지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그냥 박해를 하죠? 그러기때문에 마지막 때에 나타난 그 바벨론은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그리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말씀한거, 그게 바로 거기에 있는겁니다.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한 이레동안에. 이것은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거죠. 홍수란 말은 요한계시록 12 장에 나오죠? 12 장 13,16 절 보면 **[그 용이 자기가 땅에 쫓겨 난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여인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출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내아이를 출산했잖아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가 왕이 될려고 결국은 박해를 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았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 이거예요. 페트라로.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 곳에서 그 뱀의 뱃을 피하여(마귀의 뱃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용이 어떻게 홍수를 만드느냐? 맨날 그림에 나온 용만 보거든요. 용이 그 정도 용이 아닙니다. 마귀가 다 용 그림 그려 가지고 거기서 복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섬기면서. 복은 주죠? 중국 사람들한테. 마귀를 용이라고 그래도 그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거기서 홍수가 나오냐? 결국 마귀가 환란 때 그 입에서 홍수를 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빠뜨려 죽일려고 한거예요. 욥기 40 장 23 절 보면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않으며]** 여기 그는 마귀를 말해요. 용. 욥기에 나오죠. 용, 마귀의 정체. **[요단을 자기 입속으로 빨라**

들일수 있다.] 요단강 전체를 자기 입속으로 빨아 들일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뿜을수도 있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 집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왜 상징적으로 푸냐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영적으로 되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 버린 거죠.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있다. 그럴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19 장 16 절에 있는것처럼 재림하시면 그때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산으로 도망가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갔습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해놨어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황폐하게 해놓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아 저게 뭐야? UFO 가 온다고 하면서 방송을 할겁니다. 브레이킹 뉴스가 나올 겁니다. 드디어 UFO 가 옵니다. 떼를 지어서 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려고 할것입니다.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다. 말씀만 하면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핵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쓸게 없어서 핵무기를 쓰는거 아닙니다. 절대 안쓰니다. 쇠로 된 칼을 쓰시는것도 아닙니다. 그때 거기서 아마겟돈 군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진멸되고 팔레스타인 땅이 황폐가 극에 달하지만 주님이 오셔 가지고 자유롭게 합니다. 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27 절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것이라.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 지리라 하더라.]** 7 년 중간에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가증함을 확산시킨다. 그가 앉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한주 동안을 언약을 확정한다. 한 주동안이 7 년 아닙니까? 이게 바로 70 번째 주죠? 다니엘에게 말한 69 주가 지나고 한 주, 결국 7 년을 얘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초기에는 이스라엘과 한 주동안 평화협정을 맺게 된다. 그러다가 중간에 들어오면서 그 언약을 파기하고 희생제물과 예물을 금지시킨다. 자기에게 드러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드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언약은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파기되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속은게 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언약은 유대인 전체와 맺은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맺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었죠. 주님께서 그랬죠? 열왕기상 19 장 18 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 천명을 남겨 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무릎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엘리야는 그 당시에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죠? 마찬가지로? 대환란때도 막 쫓겨 가지고 혼자 혼자 있으면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7 장 보니까 그런 상황속에서도 열두 지파에 만 이천명씩 14 만 4 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었죠. 그들은 안죽어요. 총을 맞아도 안죽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남겨두셨죠? 이들이 옛날에 엘리야처럼 적그리스도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결국 첫번부터 이 조약에 동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남겨두신 것을 얘기한 것을 알수가 있죠. 결국은 모두가 다 경배할것이다. 남은 자들만이 들어갈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언약을 파기하고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대환란 기간중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죠. 성전이 지어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결국은 그것이 안된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한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9 장 20 절에 가보면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가 잡혀 가지고 유향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진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 장 8 절 보면 **[주께서 자기 입에서 나온 영으로 소멸하시고]** 결국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이 영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은 안보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할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할 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가증함이란 단어는 거짓 신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상과 깊은 관련이 있죠.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 지리라.]** 결국 7 년 대환란은 막을 내리게 되고 70 주가 종료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그 장엄한 막을 올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통과하게 될 7 년 대환란 기간은 창세기에서 이미 야곱에게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9 장 27 절 보면 **[그녀의 이레를 채우라]** 그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쪽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그녀를 위해서도 내게 7 년을 봉사해야 하리라.]** 다 여기 예언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도 다 예언입니다. 이레를 채우라. 야곱에게 이야기했죠.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야곱이 고난 받았잖아요? 자기 삼촌 밑에서. 라헬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죽으라고 고난당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7 년 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다. 창세기의 예언대로 그가 라반 밑에서 고통을 받은 것처럼 이레를 또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그랬죠. 이렇게 7 년을 라반같은 적그리스도 밑에서 고생을 더할 것이다. 야곱의 고난의 때다. 참 성경이 어찌 이렇게 오묘한지 모릅니다.